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5. 30 | 통권 제21호(2012-09) |

고졸 니트와 대졸 니트*

[요약]

- 청년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청년 니트의 수가 2011년 100만 8천 명을 기록하여,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하였음.
-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고연령화,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고학력화가 중요한 특징으로 여성화 및 고연령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비진학 고졸자, 즉 순수고졸자를 따로 구분하여 보면, 순수고졸 비구직 니트 가운데 그냥 '쉬었음'의 비중이 최근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으나, 이 비중이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어 최근 고졸 채용 증가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
- 순수대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는 '취업준비'로서 최근 60%를 상회하고 있고, 2003~2007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비중이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순수고졸의 경우와 구분되는 특징임.
- 순수고졸과 순수대졸의 비구직 니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분된 특징들은 청년 니트, 즉 청년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세분된 학력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 글은 「고졸 NEET와 대졸 NEET」(남재량(2012),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청년 니트의 현황과 활동상태

■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감소

- 15~29세로 정의되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15~34세 인구도 <표 1>에서 보듯이 감소하고 있음.¹⁾
- 즉 2003년에 14,759천 명이던 15~34세 청년 인구는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13,468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청년 니트의 규모는 다소의 등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03년에 1,148천 명이던 청년 니트의 수가 2011년에 1,327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들을 구직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데, 전자는 대부분 실업자인 반면, 후자는 비노동력화된 청년임.

- 청년 비구직 니트는, 2003년 751천 명에서 2011년에 1,008천 명을 기록하여 100만 명을 돌파함.
- 청년 비구직 니트가 월별 자료로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은 있으나 연도별 자료에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1년이 처음임.
- 청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비구직 니트의 비중 증가를 초래하여 2003년 5.1%에서 2011년 7.5%로 상승하였음.
- 이는 청년 100명 가운데 7.5명이 비구직 니트이며 구직 니트까지 고려하면 10명에 가깝다는 것으로, 이들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니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표 1> 청년 니트의 현황 및 추이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34세 인구	14,759 (100.0)	14,504 (100.0)	14,162 (100.0)	13,937 (100.0)	13,787 (100.0)	13,696 (100.0)	13,618 (100.0)	13,545 (100.0)	13,468 (100.0)
니트	1,148 (7.8)	1,214 (8.4)	1,270 (9.0)	1,267 (9.1)	1,233 (8.9)	1,249 (9.1)	1,326 (9.7)	1,344 (9.9)	1,327 (9.9)
구직 니트	397 (2.7)	407 (2.8)	397 (2.8)	386 (2.8)	343 (2.5)	331 (2.4)	353 (2.6)	349 (2.6)	319 (2.4)
비구직 니트	751 (5.1)	806 (5.6)	873 (6.2)	881 (6.3)	891 (6.5)	918 (6.7)	973 (7.1)	996 (7.3)	1,008 (7.5)
니트 아님	13,611 (92.2)	13,290 (91.6)	12,893 (91.0)	12,671 (90.9)	12,553 (91.1)	12,447 (90.9)	12,293 (90.3)	12,200 (90.1)	12,141 (90.1)

1)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일반적으로 15~29세 인구로 정의됨.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5~29세 청년의 문제가 30대 초반까지 이어지거나 누적될 수 있으므로 연령을 다소 확장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함.

-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임.
- 청년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는 ‘쉬었음’이며 그 다음은 ‘취업준비’임.
 - 2011년에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388천 명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으며, 청년 비구직 니트의 38.5%를 차지함.
 -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군입대를 위해 대기하는 것도 아니며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려할 만함.
 -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2007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3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활동상태는 ‘진학준비’로서 2011년 17.1%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3년에 15.3%였음을 감안하면 응답비중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그리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님.
 - 취업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실업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면 취업준비 형태로 비노동력화하는 것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2〉 청년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준비	122 (16.2)	157 (19.5)	201 (23.1)	262 (29.7)	281 (31.6)	319 (34.7)	301 (30.9)	310 (31.1)	306 (30.3)
진학준비	115 (15.3)	111 (13.7)	123 (14.1)	124 (14.1)	137 (15.3)	124 (13.5)	145 (14.9)	179 (18.0)	173 (17.1)
심신장애	63 (8.4)	68 (8.4)	63 (7.2)	59 (6.7)	52 (5.9)	61 (6.7)	68 (7.0)	51 (5.1)	47 (4.7)
군입대 대기	90 (12.0)	63 (7.8)	66 (7.6)	55 (6.2)	50 (5.6)	43 (4.7)	43 (4.4)	55 (5.5)	51 (5.1)
결혼준비	11 (1.5)	8 (1.0)	14 (1.6)	11 (1.3)	8 (0.9)	12 (1.3)	7 (0.7)	8 (0.8)	8 (0.8)
쉬었음	261 (34.7)	310 (38.5)	329 (37.7)	305 (34.6)	309 (34.6)	316 (34.4)	360 (37.0)	348 (34.9)	388 (38.5)
기타	89 (11.9)	89 (11.0)	76 (8.7)	66 (7.5)	54 (6.1)	45 (4.9)	50 (5.1)	47 (4.7)	36 (3.5)
전 체	752 (100.0)	806 (100.0)	873 (100.0)	881 (100.0)	891 (100.0)	919 (100.0)	973 (100.0)	997 (100.0)	1,008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청년 비구직 니트의 집단별 특성

■ 여성화

-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여성의 수는 2003년 244천 명에서 2011년 382천 명으로 138천 명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32.4%에서 37.9%로 5.5%포인트 상승하였음(표 3).
- 여전히 남성이 비구직 니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임.
-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현상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고학력화,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여성이 급속히 고학력화하고 고학력화에 따라 비구직 니트화가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를 초래한 한 단계 더 깊은 원인을 고학력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고령화

- 20대가 청년 비구직 니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2011년의 경우 이들의 비중이 무려 69.8%에 이르는데(표 4), 이는 15~34세 청년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인 46.3%에 비해 매우 높음.
-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20~24세 연령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하락하고 있는 반면, 25~29세 비중은 상승하고 있

〈표 3〉 성별 청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성	508 (67.6)	523 (64.8)	544 (62.3)	540 (61.3)	554 (62.2)	573 (62.4)	614 (63.1)	622 (62.4)	626 (62.1)
여 성	244 (32.4)	284 (35.2)	329 (37.7)	341 (38.7)	337 (37.8)	345 (37.6)	359 (36.9)	374 (37.6)	382 (37.9)
전 체	751 (100.0)	806 (100.0)	873 (100.0)	881 (100.0)	891 (100.0)	918 (100.0)	973 (100.0)	996 (100.0)	1,008 (100.0)

〈표 4〉 연령별 청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19세	123 (16.3)	109 (13.5)	122 (13.9)	104 (11.8)	103 (11.6)	110 (11.9)	115 (11.9)	130 (13.0)	139 (13.8)
20~24세	335 (44.7)	359 (44.5)	383 (43.9)	361 (41.0)	325 (36.5)	318 (34.6)	339 (34.9)	365 (36.6)	360 (35.7)
25~29세	199 (26.5)	226 (28.1)	243 (27.9)	291 (33.1)	320 (36.0)	337 (36.7)	360 (37.0)	352 (35.3)	344 (34.1)
30~34세	94 (12.5)	112 (13.9)	125 (14.3)	125 (14.2)	142 (15.9)	154 (16.7)	158 (16.2)	150 (15.0)	166 (16.4)
전 체	751 (100.0)	806 (100.0)	873 (100.0)	881 (100.0)	891 (100.0)	918 (100.0)	973 (100.0)	996 (100.0)	1,008 (100.0)

으며, 30~34세 비중 역시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15~19세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결국 청년 비구직 니트는 20대의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연령구성에서 고령화를 겪고 있음.
- 청년 비구직 니트의 고령화 현상은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청년층 내부의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청년층 전체의 고령화보다 훨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즉 고학력화에 따라 노동시장 진출 연령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비노동력화하는 청년의 연령도 더욱 높아지게 됨.

■ 고학력화

- 청년층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의 비중은 2011년 55.2%로 압도적이며(표 5), 15~34세 청년층 전체의 고졸 비중인 39.4%보다 훨씬 더 높는데, 이는 2003년의 63.6%에서 8.4%포인트 하락한 것임.

- 고졸 다음으로 비구직 니트에서 비중이 높은 학력 집단은 대졸로서 2011년 이 집단의 구성비는 25.3%인데, 이는 2003년의 16.3%에서 9%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며 청년층 전체에서의 대졸 비중 증가를 능가함.
- 비구직 니트에서 전문대졸의 비중은 대졸 다음으로 높아 2011년에 13.5%인데, 이는 2003년의 10.4%에서 3.1%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나, 청년 전체에서 전문대졸의 비중은 동일 기간 동안 3.9%포인트 상승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비구직 니트에서 전문대졸 비중의 증가는 주로 청년층의 전문대졸 증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비구직 니트 가운데 중졸 이하의 비중은 2011년에 5.9%로서 2003년의 9.7%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일 기간 동안 청년 전체에서 중졸 이하의 비중이 18.1%에서 20.4%로 2.3%포인트 상승한 것과 구분됨.
- 결국 청년 비구직 니트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 전체의 고학력화보다 더 급속함.

〈표 5〉 학력별 청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졸 이하	73 (9.7)	76 (9.4)	78 (8.9)	71 (8.1)	70 (7.9)	69 (7.5)	77 (7.9)	63 (6.3)	60 (5.9)
고졸	478 (63.6)	481 (59.6)	508 (58.2)	491 (55.7)	473 (53.1)	466 (50.8)	526 (54.0)	557 (56.0)	557 (55.2)
전문대졸	78 (10.4)	102 (12.6)	118 (13.6)	122 (13.8)	118 (13.2)	147 (16.0)	144 (14.8)	125 (12.6)	136 (13.5)
대졸 이상	122 (16.3)	148 (18.3)	169 (19.3)	197 (22.4)	230 (25.8)	236 (25.7)	227 (23.3)	251 (25.2)	255 (25.3)
전체	751 (100.0)	806 (100.0)	873 (100.0)	881 (100.0)	891 (100.0)	918 (100.0)	973 (100.0)	996 (100.0)	1,008 (100.0)

고졸 니트와 대졸 니트

■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 앞의 '고졸'에는 대학 비진학 고졸자, 즉 순수고졸자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휴학 및 중퇴자까지 포함되어 있음.
- 최근의 고졸 채용 경향 등을 염두에 둔다면 앞에서 본 '고졸' 통계가 아니라 '순수고졸' 및 비교를 위해 '순수대졸'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표 6, 7).
- 먼저 2011년에 청년층 전체 가운데 순수고졸의 비중은 17.0%이며 순수대졸의 비중은 20.5%로서 순수대졸의 비중이 더 높음.
- 그러나 이는 분석기간 동안 순수대졸 비중의 증가와 순수고졸 비중의 하락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임.

- 즉 순수고졸의 비중은 2003년 3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17.0%를 기록하였고, 순수대졸은 16.1%에서 20.5%로 상승하였음.

- 청년 비구직 니트의 구성 변화도 청년층 전체 가운데 순수고졸 및 순수대졸의 구성 변화와 유사하나, 순수고졸의 비중이 순수대졸의 비중보다 더 높다는 차이가 있음.
- 즉 2011년에 순수고졸의 비중은 24.5%로서 23.5%를 기록한 순수대졸의 경우보다 구성비가 1%포인트 더 높음(표 6).
- 구성비의 시간에 걸친 변화는 위와 마찬가지로 순수고졸의 비중 감소와 순수대졸의 비중 증가로 나타남.
- 다만 청년층 전체에서 순수고졸의 구성비는 분석기간 동안 5.2%포인트 감소

〈표 6〉 학력별 청년 비구직 니트 현황 :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수고졸	231 (30.7)	235 (29.1)	237 (27.2)	217 (24.6)	225 (25.2)	224 (24.4)	232 (23.9)	235 (23.6)	247 (24.5)
순수대졸	113 (15.0)	135 (16.7)	159 (18.2)	185 (21.0)	215 (24.2)	219 (23.9)	211 (21.7)	236 (23.7)	237 (23.5)
기타	407 (54.2)	436 (54.1)	476 (54.6)	479 (54.4)	450 (50.6)	475 (51.8)	530 (54.5)	525 (52.7)	524 (52.0)
전체	751 (100.0)	806 (100.0)	873 (100.0)	881 (100.0)	891 (100.0)	918 (100.0)	973 (100.0)	996 (100.0)	1,008 (100.0)

〈표 7〉 15~34세의 학력 구성 :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수고졸	4,754 (32.2)	4,397 (30.3)	3,989 (28.2)	3,557 (25.5)	3,219 (23.3)	2,908 (21.2)	2,618 (19.2)	2,438 (18.0)	2,294 (17.0)
순수대졸	2,380 (16.1)	2,418 (16.7)	2,437 (17.2)	2,526 (18.1)	2,541 (18.4)	2,553 (18.6)	2,609 (19.2)	2,687 (19.8)	2,766 (20.5)
기타	7,625 (51.7)	7,689 (53.0)	7,736 (54.6)	7,854 (56.4)	8,027 (58.2)	8,235 (60.1)	8,391 (61.6)	8,420 (62.2)	8,409 (62.4)
전체	14,759 (100.0)	14,504 (100.0)	14,162 (100.0)	13,937 (100.0)	13,787 (100.0)	13,696 (100.0)	13,618 (100.0)	13,545 (100.0)	13,468 (100.0)

하였으나, 비구직 니트에서 순수고졸 비중은 6.2%포인트 하락하여 후자에서 하락 폭이 더 큼(표 7).

- 순수대졸의 경우에도 청년층 전체에서의 비중은 4.4%포인트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비구직 니트에서 구성비는 8.5%포인트 상승하여 상승폭이 더 큼.

■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는 각각 '쉬었음'과 '취업준비'임.

- 순수고졸의 경우, '쉬었음'의 비중이 매우 높아 2011년 45.8%, 2003년 46.1%, 2004년 51.1%를 기록할 정도이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학준비'로서 2011년에 28.1%인데, 이는 2003년 14.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임(표 8).
- 그런데 순수고졸에서 '취업준비'의 비중은 의외로 높지 않아 2003년 7.9%,

2011년 6.8%에 불과한데, 이는 앞에서 보았던 취업준비 비중의 급격한 상승이 적어도 순수고졸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려줌.

-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할 것은 2009년 이후 순수고졸의 '쉬었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졸채용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경우 순수고졸의 '쉬었음' 비중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됨.

■ 순수대졸의 주된 활동상태는 순수고졸의 경우와 크게 달라 '취업준비'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순수대졸에서 '취업준비' 비중은 2011년에 무려 63.5%에 달하는데, 이는 2003년 48.4%에 비해 15.1%포인트나 상승한 결과임(표 9).

〈표 8〉 순수고졸 청년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준비	18 (7.9)	16 (6.7)	18 (7.6)	23 (10.4)	24 (10.7)	27 (11.8)	23 (9.8)	22 (9.1)	17 (6.8)
진학준비	34 (14.8)	32 (13.6)	35 (14.9)	36 (16.3)	42 (18.4)	43 (19.0)	41 (17.6)	56 (23.6)	70 (28.1)
심신장애	27 (11.8)	28 (11.8)	28 (11.6)	24 (11.0)	20 (8.8)	25 (11.2)	32 (13.5)	25 (10.5)	23 (9.4)
군입대 대기	18 (7.8)	13 (5.7)	12 (5.1)	6 (2.9)	9 (4.0)	6 (2.7)	5 (2.2)	9 (3.8)	14 (5.7)
결혼준비	4 (1.7)	2 (1.0)	6 (2.5)	4 (2.0)	3 (1.3)	2 (0.9)	2 (0.7)	3 (1.1)	4 (1.4)
쉬었음	107 (46.1)	120 (51.1)	120 (50.3)	105 (48.2)	112 (49.5)	107 (47.5)	118 (50.7)	110 (46.6)	114 (45.8)
기타	23 (9.8)	24 (10.2)	19 (8.0)	20 (9.2)	17 (7.3)	15 (6.8)	12 (5.3)	12 (5.3)	7 (2.8)
전 체	232 (100.0)	235 (100.0)	238 (100.0)	219 (100.0)	226 (100.0)	225 (100.0)	233 (100.0)	236 (100.0)	248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표 9〉 순수대졸 청년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준비	55 (48.4)	74 (54.6)	95 (59.3)	123 (66.0)	151 (69.5)	154 (69.5)	137 (64.4)	149 (62.6)	152 (63.5)
진학준비	10 (8.8)	12 (9.2)	13 (8.4)	13 (6.9)	15 (6.9)	11 (5.0)	15 (7.1)	21 (8.7)	17 (7.3)
심신장애	3 (2.7)	4 (2.9)	3 (2.1)	2 (1.1)	2 (0.7)	3 (1.4)	5 (2.1)	2 (1.0)	1 (0.5)
군입대 대기	1 (0.7)	1 (0.6)	1 (0.9)	2 (1.2)	2 (0.7)	2 (1.1)	2 (0.9)	2 (0.8)	1 (0.6)
결혼준비	3 (2.6)	3 (2.0)	3 (1.6)	3 (1.5)	2 (0.9)	5 (2.5)	2 (0.8)	3 (1.1)	2 (0.9)
쉬었음	25 (21.6)	30 (21.9)	31 (19.2)	31 (16.5)	36 (16.6)	38 (17.3)	44 (20.6)	51 (21.5)	54 (22.8)
기타	17 (15.2)	12 (8.8)	14 (8.6)	13 (6.9)	10 (4.6)	7 (3.2)	9 (4.1)	10 (4.3)	11 (4.4)
전 체	114 (100.0)	135 (100.0)	160 (100.0)	187 (100.0)	217 (100.0)	221 (100.0)	212 (100.0)	238 (100.0)	239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 특히 '취업준비'의 비중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1.1%라는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등으로 구분한 학력집단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함.

- 한편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순수대졸의 '쉬었음' 응답은 2011년에 22.8%, 2003년에 21.6% 정도인데, 이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나 50% 수준에 육박하는 순수고졸의 경우와는 크게 대비되며, '진학준비'의 비중도 2011년 7.3%로 높지 않음.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jrnam@kli.re.kr / 02-3775-5557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